직장직능단체 대표자회의 연다

6~7월경…정보교류 · 조직활성화 모색

포교원에 법사추천 · 지원팀 상설화 요청

IMF 경제한파 이후 과중한 업무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활동이 주춤했던 직장직능법회 활성화와 조직화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직장직능 신행단체 상호간 유대강화 및 현황파악을 통해 조직화사업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직장직능 신행단체 대표자 대회'가 6월~7월경 1박2일의 일정으로 열린다.

전동차정비창법우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한불교제과인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등 직장직능 15개 신행단체 대표 20여명은 3월30일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결의하고 6인의 준비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6인의 대회실무위원은 조정봉 서울시청불심회 지도법사, 대한불자가수회 남강수 회장, 이순형 한국전력반야회 사무국장, 김동연 감사원불자회 총무, 김태경 한국세무자불자회 총무 등.

대회준비실무위원회는 9일 오후 7시 포교원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대회 장소 및 일정, 프로그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각 단체별 정보교류와 신행활동의 경험을 나누고, 단위법회 및 연합조직 모범사례 발표, 지역별 · 동일업종별 법회 활성화와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는 선에서 대표자대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직능 신행단체장들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포교원에 직장직능법회 지원팀을 상설화해 통일 의식집 및 초심자교리책자 발간, 초청법사 추천, 행정적 지원을 전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원활한 직장직능 법회 운영은 불교를 대중화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며 "예산이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장직능법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 '거리의 포교사' 운불련 회원들이 25일 금산사에서 영호남 친선교류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기념촬영했다.

영호남 화합 나선 거리포교사

운불련 금산사서 연합법회

불자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영 · 호남 화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전주지역회(회장 최병식)는 3월25일 금산사에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운불련 21개 지역회, 전북지역 23개 신행단체 대표 및 회원 3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호남 친선교류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 2건국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최병익 회장은 "정치판에서 조장된 지역감정이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면서 "'거리의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운불련 회원들이 영 · 호남 화합을 다져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정부 6개기관 합동 수련

27 · 28일 영천 은해사서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북 · 전북도청, 영천시청 등 3개 정부부처와 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불자회가 3월27일~28일 은해사에서 합동 성지순례법회〈사진〉를 가졌다.

1백여명의 회원들은 거조암 선본사를 참배하고 발우공양 습의 등 사찰예절에 관한 강의를 받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감사원불자회는 28일 감사원 법당에 모실 은해사 괘불탱화(보물 1270호) 축소제작품 점안식 및 이운식을 갖기도 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부경연등회 창립 1돌 법회

새정치국민회의 부산경남연등회(회장 사상호)는 창립 1주년을 맞아 9일 오후 6시 국제신문사 대강당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민화합 대법회'를 봉행한다.

사상호 회장은 "지역간, 계층간 갈등구조의 불교적 해결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혜암스님이 증명법사로 자리를 함께하는 이날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 송광사 주지 현지스님을 비롯해 연등회 박상규 회장, 조선대 김홍명 총장, 부산고등법원 안문태 법원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모임에선

반야라이온스 선원 열어

부산반야라이온스클럽(회장 김종호)은 3일 수영구 광안동에 반야선원을 개원했다.

김종호 회장의 전액보시로 개원된 반야선원은 부산라이온스클럽 전용법당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청소년 포교와 상담, 일반불자의 신행공간으로 활용된다.

김종호 회장은 "법당 개원을 계기로 클럽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반야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자가수회장 남강수씨

대한불자가수회는 28일 오후 3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임기만료된 명국환씨가 회장에서 물러나고 남강수씨가 신임 회장에 취임한다.

대한불자가수회는 이에앞서 오후 2시 가수회와 불교방송후원회, 일반불자 등과 함께 4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옹고집 없는 선객 화두없는 선객"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⑬

〈지난 호에 이어〉

니체는 탄식했다.

"언제나 나는 나의 입이 노래하면 나의 귀가 들을 뿐이로다."

이 얼마나 잔혹하리만큼 절절하게 표현한 고독의 극치인가. 고독속에서 고독을 먹고 고독을 노래하면서도 끝내 고독만은 낳지 않으려는 의지가 바로 선객의 의지이다. 화두는 거북이 걸음인데 세월은 토끼뜀질이다. 어찌 잠시라도 화두를 놓을 수가 있을까.

선객은 옹고집과 이기와 독선으로 뭉쳐진 아집(我執)의 응고체라고 흔히들 비방삼아 말한다. 그러나 비방이 아니라 사실이며 또한 실상이어야 한다.

불교는 가르치고 있다.

"아집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다면 나(如來)만이 그(衆生)를 제도할 수 있다는 아집까지 버려야 할까. 그래서 수보리(須菩提)는 물었다.

"여래는 여래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한다면 아상에 떨어지고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중생을 건지나이까?"라고.

아집없는 선객은 화두없는 선객과 같다. 견성하지 못하고 선객으로 머무는 한 아집은 공고히 하고 또 충실해야 한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옆에 누운 지객스님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연륜을 더했군요."

"그렇게 되었네요."

"지난해엔 제자리 걸음도 못한 것 같아요. 금년엔 제자리 걸음이나 해야 할텐데 별로 자신이 없군요."

"어려운 일이지요. 평범한 인간들은 시간을 많이 먹을수록 그것으로 인해 점점 빈곤해지고 분발없는 스님들은 절밥을 많이 먹을수록 그것으로 인해 점점 나태와 위선을 쌓아가게 마련이지요. 나아가지 못할 바에야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야 할텐데…."

■1월3일 단식기도

생식을 하는 스님이 산신각에서 단식기도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생식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된다고 하는데 몸이 무척이나 약했다. 상원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약해 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입산했다는 스님인데 독서량이 지나치게 많아 정돈되지 못한 지식이 포화상태를 지나 과잉상태다. 그래서 두루 깊이없이 박식하다. 극히 내성적이어서 집념이 강하고 몸이 약하니 극히 신경질적이고 여러가지로 박식(?)하기 때문에 오만하고 위선기가 농후하다.

절밥을 오른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햇수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도인행세를 하려고 하니 구참 선객들에게는 꼴불견이다. 틀림없는 삐에로다. 남과 얘기할 때는 상하나 선후 구별없이 가부좌를 한 채 눈을 지그시 감고 말을 느릿느릿 짐짓 만들어서 하고 걸음걸이도 느릿느릿 갈지자로 걷는다. 그러다가도 누가 자기 자존심에 난도질을 하면 신경질이 발작하여 총알같은 말씨로 갖은 제스처를 써 가면서 응수한다. 생식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하나의 상(相)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의 언행이 대변해 주고 있다. 지기를 싫어하는 뒷방 조실스님도 이 스님에게는 손을 들고 말았다.

약간 병적인 그의 언행이 대중들로부터 지탄을 받다가 끝내는 버림을 받았다. 개밥에 도토리격이 된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는 아무래도 대중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과시해보려고 착상한 것이 바로 단식기도이다. 그의 건강으로 보아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 엄동에는 더구나 안 될 일이다.

점심공양을 마친 나는 처음으로 그 스님과 마주 앉았다.

"스님, 단식기도를 하신다면서요? 이 엄동에 냉기 감도는 산신각에서…."

"예, 모두가 따뜻한 방안에서 시주밥이나 얻어먹고 망상만 피우면서 시비만 일삼으니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입니다."

기가 콱 막힌다. 그러나 시비할 계제는 못된다. 그와 나는 여러가지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이 우매한 대중의 업장을 도맡아서 녹여볼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단식하면서요."

"고마운 생각이오. 하지만 스님, 〈장자경〉을 독파했다니 한단지보(邯鄲之步)를 기억하시지요? 연나라 소년이 조나라 도성인 한단에 가서 조나라 걸음걸이를 배우려다가 조나라 걸음걸이를 배우기 전에 자기나라 걸음걸이까지 잊고 필경 네발로 기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고사 말이외다."

"예, 알고 있지요."

나는 서서히 그의 허를 찔러 상을 벗겨보기로 했다.

"서시빈목(西施嚬目)을 기억하시지요? 미인 서시가 병심(病心)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마을을 지나가는 것이 예뻐 보이자 그 마을 추부(醜婦)도 흉내로 눈살을 찌푸리고 다니니 부자는 폐문한채 외출을 금하고 빈자는 처자를 이끌고 그 마을을 떠나갔다는 고사말이외다."

"그것도 기억하고 있지요."

'그는 아니꼽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스님, 누워서 한시간 취하는 수면은 앉아서 취하는 세시간의 수면보다 승하고, 서서 취하는 다섯시간의 수면보다 수승할 것입니다. 자성(自性)을 무시하고 인간의 작위에 성명(性命)을 맡기는 자는 언제나 허위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오. 구도자를 표방하고 고행을 한다면 양생(養生)을 외면하는 행위는 종교적 의식으로 재계(齊戒)는 될지언정 심적 재계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행은 끝내 자기학대가 아니라 자기위주가 아닐까요."

"무서운 양도논법(兩刀論法)이군요. 마치 문턱에서 두발을 벌리고 입(入)이냐 출(出)이냐를 묻는 것과 같군요."

"논리적인 시(是)와 비(非)를 떠나 시비를 가려 보자는 거요."

"표준의 상대성 때문인가요."

"아니요. 다만 언어의 한계성 때문이지요."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요. 고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학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자기학대는 자기 훼손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노자도 언급했습니다. '위도(爲道)함에 일손(日損)이니 손지(損之) 우논지(又損之)하여 이지어무위(以至於無爲)하면 무위이무불위의(無爲而無不爲矣)'라고. 손(損)에 손(損)이 거듭하여 손함이 없을때 비로소 득도할 수 있음을 말하는게 아니겠어요. 자기위주면 타인은 벌서 안목 밖이 아니겠어요."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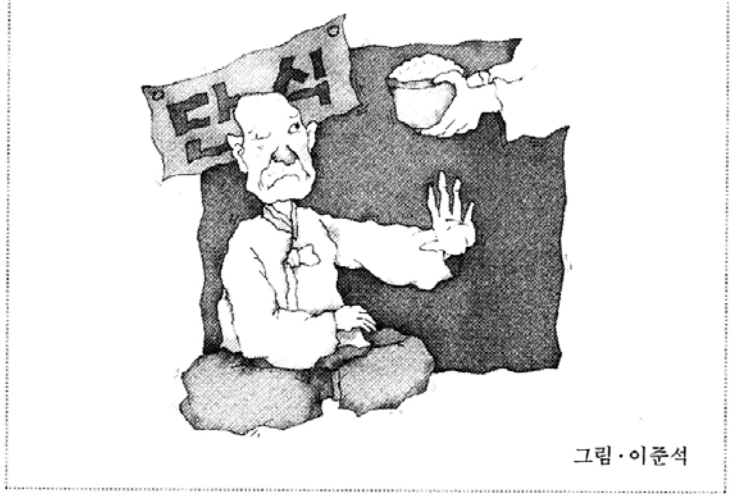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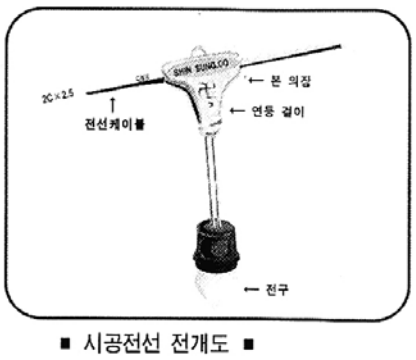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분발 없으면 절밥 먹을수록 위선만 쌓여
자성 무시한 단식강행은 자기 학대 불과

봉축연등 · 법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전선은 굵고 크기는 작게 "T형 일체형 전선" 탄생)
{의장 제 16525호}

▲ 전기배선 시공한 법당



■ 시공전선 전개도 ■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 특징
1. 일체형으로서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2. 연등 설치시 편리하게 연등고리를 만들었습니다
3. 불자 기업으로서 卍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재료 절감과 청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5. 설치 수거하실 때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 한층 더 수월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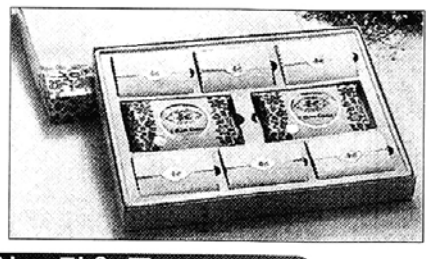
신성기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97-17호 H.P: 019)380-3786 FAX:02)322-3785

경기 북부 대리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17-4
TEL 0356)584-5663 FAX 0356)584-6300
H.P 011)758-7329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괘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